

# 한끼 해결도 힘든 결식아동 급식비 고물가에 아이들 갈 곳은 편의점 뿐

광주시 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김모(12)군은 요즘 하루 한 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한다. 모친과 단둘이 사는 김군은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고 나면 주로 점심에 편의점을 찾는다. 7000원 한도 범위에서 편의점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로 우유 등을 구입한다. 비용은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광주시 아이 꿈나무 카드(일명 급식카드)'로 결제한다. 김군은 "식당이나 분식집에서 한 끼에 7000원까지 쓸 수 있는 카드"라며 "이 돈으로 먹을 데가 마땅치 않아 주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결식 우려 아동에게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끼니 당 7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7000원으로는 웬만한 식당에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시는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 18세 이하 1만6000여명의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이다.

지원 규모는 아동의 형편에 따라 하루 한 끼·두 끼로 다르지만, 한 끼 지원금액은 7000원으로 같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 끼당 지원금이 5000

원·전남 대상 학생 4만 3000명 7000원으로 먹을 만한 게 없어 햄버거·컵라면 등으로 한끼 때워 서울 작년 9000원 등과 대조적 국비 지원으로 단가 현실화해야

원이었으나 올해 들어서 인상됐다.

광주시 파악결과 지원 대상 1만6000여명의 아동 가운데 절반은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도시락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도 끼니당 7000원을 한도로 모두 2만 7000여명의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5000원이던 급식지원비를 잇따라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 메뉴를 찾기 힘들다시피 하면서 점심이면 동네 편의점을 찾는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지표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품목은 김밥(1줄 2900원)과 짜장면(6100원)뿐이다. 김치찌개 백반·칼국수는 7800원, 비빔밥은 8700원, 냉면은 8800원으로 한 끼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삼겹살(1인분 200g)은 1만 4244원·삼계탕은 1만 5000원으로 두 끼 지원금을 모아도 사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자 지자체'는 지원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한 지자체'는 낮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끼니당 9000원씩 지원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6000원, 5000원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결식 우려 아동이라고 해도 사는 곳이 다르면 급식비 지원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기준,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전국에 30만명이 넘는다"며 "그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기존 지원금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사 먹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편의점 도시락으로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지만, 전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에 맡겨져 있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밥 때문에 주눅이 들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비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침수 때 탈출 이렇게 하세요”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지하철 역사 등의 건물에서 발생 가능한 침수피해에 대비해 탈출법을 익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시험지 유출 사건 사과...재발 방지대책 발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평가 과정 전면 재점검 등 보안 강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일 최근 논란이 된 '광주 A사립고 기말고사 문답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A고교 지필평가 유출에 대해 교육가족 및 시민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가 유출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생 평가와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엄정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노트북 화면 보안 및 촬영, 캡처 방지 시스템 즉시 도입 ▲시험 출제, 인쇄, 시행, 채점에 이르기까지 전 평가과정에 대해 전면 재점검 ▲교육청 차원의 감시를 통한 진상 파악과 관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

관내 고등학교 교직원이 사용 중인 PC, 노트북을 대상으로 2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솔루션 프로그램을 일괄 보급, 설치하겠다"며 "전 평가과정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고, 업무용 PC보안 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운용, 정보기기의 보관뿐 아니라 학교 내 무선망 등 인터넷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A고교에서의 재시험 실시 여부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학교에 있는 관련 위원회가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학생 퇴학 등 조치에 대해서 "퇴학, 자퇴 여부도 학교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는 "A고교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출제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학교장이나 기타 관련 담당자들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살피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학교에 대한 불이익도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교무실·화장실 현대화, 스티디카페 설치 등 사업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내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학교급식 단가 전국 최하위...교사노조 "1000원 인상해야"

광주지역 초등생이 서울지역 초등생보다 한끼 당 1300원 싼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일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생들의 학교 급식비 단가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광주 초등생 학교급식 단가는 202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중학교(2525원)·고등학교(2603원)는 각각 16위를 기

록했다.

전남도 초등생 학교급식 단가가 2095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고, 중학교(2445원)·고등학교(2595원)는 전국에서 꼴찌였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물가마저 치솟고 있어 1학기 때부터 학교 현장에선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였으며, 국산 참기름을 못 쓰고 수입산을 사용하는 형편이 됐다"면서 "2학기 학교급식

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 부산, 제주, 충북, 충남 등 타 시·도는 예산을 확정짓고 2학기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추경에서 급식비 단가를 끼니당 1000원 올리지 않으면 우리지역 학생들은 2학기에도 질 낮은 급식을 견뎌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양 일가족 사망 극단적 선택 결론...수사 종결

완도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조(10)양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조양 일가족의 부검, 차량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양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조양 일

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조양 부친에게서는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으며, 모친·딸에게서는 그보다 강력한 수면진정제 '트리아졸람'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체 부패가 심해 사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부친은 모친과 딸에 비해 익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모친과 딸의 폐

에서는 플랑크톤 11-12개체가 검출됐으나 부친에게서는 2배가 넘는 26개체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 조양 일가족 차량 블랙박스에는 지난 5월 31일 새벽 0시 10분께 방파제에서 추락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차량 인양 당시 차량 변속기가 주차(P)단으로 돼 있었는데 이는 차량이 바다에 떨어진 이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고 물에 빠뜨려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해 기소할 수 없게 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h3>당진(신축)원룸매매</h3>	<h3>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p>1) 감정가 (시세) <b>9억</b> 매매가 <b>7억</b> (용 4억가)</p> <p>2) 월수익 <b>350만</b>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b>월수익 750만</b> <b>연수익 9천만</b> <b>매매14억5천</b>(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 rowspan="6">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gt; 최저가 3억6천 (7/14)</td> </tr> <tr> <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1억5천 (7/27)</td> </tr> <tr> <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gt; 최저가 3억 1천 (8/04)</td> </tr> <tr> <td>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03)</td> </tr> <tr>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18억 (8/04)</td> </tr> <tr> <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3)</td> </tr> <tr> <td rowspan="4">전남</td> <td>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gt; 최저가 8천(8/03)</td> </tr> <tr> <td>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gt; 최저가 3억7천 (8/3)</td> </tr> <tr>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1억1천 (8/3)</td> </tr> <tr> <td rowspan="3">시외</td> <td>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gt;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gt; 최저가 14억 (7/22)</td> </tr> <tr> <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